

1차 · 2차 지부 집단교섭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2026년 지부 집단교섭을 시작하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금속산업 포항 지역 관계사용자협의회는 4월 16일 포항 금속노조 포항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1차 집단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4월 16일 1차 집단교섭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은 중앙교섭 요구를 포함한 지부교섭 요구가 과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날 동일산업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회 현황 문제도 협조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동(클라이언트코리아 교섭대표) 교섭대표는 올해 2026년 지부 집단교섭 교섭대표를 맡았고,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집단교섭 운영 원칙과 차기 회의를 4월 23일로 합의하고 1차 집단교섭을 마쳤다.

4월 23일 2차 집단교섭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차 지부 집단교섭을 열고 포항 지역 관계 사용자협의회에 올해 노조 요구안을 설명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 ▲임금 인상 등 2가지 지부 집단교섭 요구를 설명했다.

신명균 지부장은 대정부 요구를 포함한 대지자체 요구를 다시 언급하며 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CUBGF 사건을 언급하며 철강 문제에 대해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노사는 차기 교섭에서 요구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사용자협의회는 3차 지부 집단교섭을 5월 7일 지부 회의실에서 연다.

포항지부는 현재 현안 사업장이 산적해 있다.

4월 17일 네이처이엔티지회 조합원 대다수가 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업장 내에 이미 설치된 천막 농성장을 거점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두웰지회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지적하며 투쟁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철강사업장 노동자들은 원청이 책임지는 교섭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원청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와 맞물려 포스코의 직고용 발표, 불파소송 3·4차 대법원 승소, 6차 및 7-2차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등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 회복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곧바로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을 흔드는 사용자 측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현장의 불안과 분열을 키우는 행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합원들이 흔들림 없이 단결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